광주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한다

"재정민주주의 강화" …내달 10일까지 · 2025년 예산 반영

광주시가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로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 예산 제안사업은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으로 구분된다.

시정참여형은 광주시민의 생활 편익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당 5억원 이하이다.

청년참여형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자치구 사업인 지역참여형과 동단위계획형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5000만원 이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사 · 선정해 시민참여예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단순 민원과 특정단체 사업, 중복성 사업, 일회성 공연 · 축제,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총회 등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담겨 의회 승인 이후 최종 확정된다.

공모 참여희망자는 인터넷(광주시 누리집, 주민e참여),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혁신적이고 참신한 제안사업을 '시민광장 광주온'을 통해 접수받는다. 광주온에서 30일 동안 50표 이상 공감을 얻은 제안 사업은 사업부서,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김도기 기자

전남 하수도 보급률 2030년까지 90% 달성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90%를 목표로 중기 하수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83.9%로, 전국 평균(95.1%)을 밑돌고 있다.

5개 주요 사업인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도시 침수 대응을 중심으로 기존 투자 예산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9764억 원 규모다.

이 기간 연도별로 각 시 · 군에서 제출한 하수도사업계획 중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재이용관리계획, 타당성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여부 등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을 정했다.

또 도시 침수와 악취, 연 3회 이상 반복적 수질 기준 뿐 아니라 노후화 등 성능 · 안전 저하 시설 개선,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일부 지자체의 사업도 포함했다. 특히, 자체 재정을 활용한 선투자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시 · 군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고려해 반영했다.

도는 중기 하수도사업계획을 통해 시 · 군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현안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과 면단위, 도시침수 대응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일 · 생활균형 실천 다짐 대회 김영록 지사가 지난 5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道 공사 · 출연기관 일 · 생활균형 실천 다짐 대회'에 참석, 21개 공사 · 출연기관장과 일 · 생활균형 실천 서약을 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저출생 · 소멸 극복 프로젝트 '시동'

21개 산하기관 일 · 생활 균형 실천 다짐대회

전남도가 5일 도청 왕인실에서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 일 · 생활 균형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도 공사 · 출연기관 일 · 생활균형 실천 다짐대회를 가졌다.

도는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솔선수범키로 했다.

도 산하 21개 공사 · 출연기관도 일 · 생활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지사와 공사 · 출연기관장 등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 출연기관의 일 · 생활 균형 실천 우수사례 소개, 기관장과 2030직원이 함께하는 세대공감 토크, 전남 육아 아빠 사진전, 출생수당 318프로젝트 홍보 등으로 채워졌다.

특히 우수사례인 ▲사내부부의 유연근무를 활용한 슬기로운 육아 이야기 ▲임산부의 임신기 단축근무 ▲모두가 일하고 싶은 가족친화 조직문화 ▲육아휴직제를 통한 맘 편한 육아생활 등 관련 공사 · 출연기관 직원들이 직접 출연, 다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세대공감 토크는 결혼, 육아, 가족, 직장생활, 바람직한 조직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통해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부족한 부분은 일 · 생활 균형 실천 서약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 호 기자

광주시, 맛집 10곳 밀키트 나온다

'광주의 맛 전국에' …상품화 공모 · 전과정 지원

광주지역 대표 맛집의 음식을 밀키트로 제작해 판매한다.

광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10곳을 선정해 주요 음식 등을 밀키트로 제작해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밀키트 상품개발 전문가 컨설팅과 상품 디자인 기획, 시제품 제작, 온오프라인 판매, 마케팅 지원 등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화 개발 대상은 김치, 반찬, 광주 전통시장상품, 광주대표 음식상품, 지원업체 자체 개발상품, 광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품 등 밀키트화가 가능한 모든 상품이다.

또 개발한 밀키트는 티몬 플랫폼과 해당 점포를 통해 온 · 오프라인 판매되며 사회복지시설과 끼니지원사업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은 대표 음식 소개가 포함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등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로 오는 24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메뉴의 지역성 및 가치성 등 서류평가와 품질관리력 등 기술력, 제품 생산력, 시장성 등을 살펴보는 현장평가 등을 종합 심사해 10곳을 선정, 오는 9월까지 밀키트를 개발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의 맛을 전국으로 알리고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전남, 항공사진 등 최신 공간정보 무상 개방

올해부터 높이 알 수 있는 수치표고 모형도 공개

전남도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 제작한 항공사진과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5000분의 1 국가기본도를 공급받아 최신 공간정보를 무상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전남도와 국토지리정보원 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매년 전남 전역을 촬영해 제공중이며 올해는 높이를 알 수 있는 '수치표고모형'까지도 공개할 계획이다.

최신 항공 영상과 수치지형도, 드론 영상에 대해 공공기관은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도민은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https://map.jeonnam.go.kr)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공간정보 플랫폼에서는 최신 공간정보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항공영상을 시계열로 확인할 수 있다.

수치지형도와 지적도, 용도지역 등 각종 주제도와 중첩해 위치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심과 산단 등 개발사업이 빈번한 지역은 직접 촬영한 드론 영상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해 산불, 풍수해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이전 · 이후의 고해상도 영상을 재난유형별 최적의 융복합 데이터로 가공, 재난 대응 · 복구에 즉시 활용토록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 호 기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6곳 신규 지정

2000만원씩 지원

전남도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6곳을 신규 지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신규 지정은 1월부터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바라는 법인 · 단체의 신청을 받아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이로써 전남지역 예비마을기업은 모두 125곳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된 기업은 마을 공동 판매, 지역 특화 소득 창출, 고령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과 자산취득비 등 보조금과 판로 · 경영컨설팅비용으로 한 곳당 2000만 원씩 지원받는다. 다만, 법인이 아닌 단체는 지원 약정 후 2개월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본 사 인 사

▲ 부사장 조 승 채

▲ 편집국 지역사회부 기자 강 성 국 (담양 주재)

2024년 4월 8일자

광양시 공고 제2024 - 874호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광 양 시 장

1. 조사목적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입지 후보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2024. 3. ~ 8. ※ 현지조사 여건 등에 따라 조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조사대상 지역 : 광양시 전역

4. 조사내용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등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생활폐기물 복합폐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나. 설치기관 : 광양시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입지에 따라 종류 · 규모 및 부지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종류 및 규모 : 소각시설 220톤/일, 재활용품선별시설 30톤/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90톤/일
○ 부지면적 : 66,000㎡ 이상
라.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광양시 전역
마. 조사범위
○ 현황 및 입지후보지 조사
- 지역현황 : 지리, 지형, 기상, 행정구역, 토지이용, 인구 및 산업 현황 등
- 일반현황 : 환경기초시설현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광양시 국 · 공유재산 부지 현황 등
○ 입지후보지 현장 조사 및 환경영향 검토
- 후보지별 활용 가능 면적, 인접 주민현황 등 현장 조사
- 생태계, 대기질, 수질, 악취, 토지이용 등 환경영향 검토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조사
- 입지적 조건, 사회적 여건, 환경적 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을 평가하여 최적 후보지 선정
○ 관련 법규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기타 주민지원방안 검토 등

5.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전문연구기관 : ㈜한국종합기술

6. 본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기타 공고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법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2996~7)에 문의 바랍니다.